

무주산 사과·샤인머스켓 수출길 올라

사과 내년 5월까지 100톤 규모·샤인머스켓 4.8톤 선적 베트남에 수출

무주군이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는 무주산 사과와 샤인머스켓이 베트남 수출길에 오른다고 6일 밝혔다.

무주군은 6일 안성면 중산마을에 위치한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횡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오영석 무주농협군지부장, 무주농협 과동열 조합장, 구천동농협 양승우 조합장,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양시춘 대표 등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베트남에 무주포도 샤인머스켓 수출물량은 사과 13톤으로, 이번 베트남과의 수출계약이 체결되면서 내년 5월까지 100톤 규모의 수출 일정이 잡혀 있다.

이어 8일 오후 만남의 광장에서 베트남에 무주포도 샤인머스켓 4.8톤을 선적할 계획으로 베트남에 본격 해외 판매망을 갖추게 됐다.

이번 수출되는 무주포도와 샤인머스켓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당도가 높은 과일로 베트남에 수출됨에 따라 새로운 농기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횡인홍 군수는 “이번 베트남에 수출하는 무주산 샤인머스켓과 사과는 당



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국내·외 애호가들로부터 많이 찾고 있는 품종이다”면서 “이번 베트남 해외 수출을 계기로 해외 많은 나라들과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농기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도(샤인머스켓)의 경우 국내 가격

/무주=전문선 기자

제9대 장수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장수군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6일 원안기결됐다.

이로써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됐으며, 장수군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총 10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통해 군정

에 대한 온비론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의 구현 △시설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후관리 철저 △공정하고 협평성 있는 계약 △민간위탁사업의 지도·감독 및 평가 철저 △보행교통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관리 철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 △귀농·귀촌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효과적 사업 발굴 등이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 위원

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장수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종섭 행감특위 위원장은 “제9대 장수군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인민들의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해 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 이에서 공감되고 신뢰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열어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6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최훈식 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

섭)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전 부서와 장수한우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총 101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는 6일부터 당초 4,891억원 보다 330억원이 증가된 5,221억원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이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나눔문화 확산 노력 다짐… 우수자원봉사자 기관장 표창 등 진행

무주군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솔선수범하기로 다짐했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6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단체장, 각 기관장 등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회 무주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는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솔선설천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혁신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군민 실현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취지다.

이강우 이사장 대회사, 횡인홍 군수 격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등 축사로 한마음대회를 맞은 자원봉사자들을 축하했으며, 2022년 자원봉사자 활동이 담긴 영상 상영과 기념식,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재능기부를 통한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강우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



음이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인홍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혁신봉사한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군수 포상을 수여했다.

횡인홍 군수는 “올해 코로나19와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펼쳐주신 봉사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혁신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나눔문화가 더 확산되면서 따뜻한 무주를 열어가는데 있어 숨은 공로자들이다”며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홍삼 꾸러미 전달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는 6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서 관내 수변 지역으로 지정된 8개 읍·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한 홍삼

엑기스 600상자 나눔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 후 홍삼 꾸러미는 지역 내 소

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 위원들과 진안군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들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됐다.

김세진 지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 내 사회기관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합동점검 실시

진안군은 6일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해 전리복도와 한파저감시설, 한파쉼터, 도로열선장치 등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점검으로 추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한파저감시설인 탄소발열의자와 방풍시설 작동여부와 관리상태, 한파쉼터 개방 여부 및 난방기기의 안전점검, 도로열선장치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여부 등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나 이면도로 주위의 제설 자체 비축 여부 및 제설할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해 대설에 철저히 준비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북도와 협업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금연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 가져

진안군은 6일 보건소 강당에서 금연성공자 70명과 금연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축하와 함께 금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평생 금연 다짐 서약식과 한인우 감사의 활기 넘치는 레크리에이션, 한은경 강사의 금연 유지를 위한 건강 관리 교육으로 진행됐다.

2022년 한해 금연을 결심해 진안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총 192명이며 이 중 6개월 이상 금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103명, 3개월 이상은 192명에 이르는 등 금연클리닉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넘어서 지역사회가 건강 하도록 금연을 결심한 것에 빙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군 금연클리닉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